

# 1960-80년 반독재 투쟁 청년 바친 민주열사



## 70년대 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12>박세정

### 4·19때 민주화운동 시작...함석헌 씨알농장서 사상 넓혀 장준하 경호수행...전국에 5·18 대학살극 알려 모진 고초

"청년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순수하고 치열했으며, 격렬했다."

박세정(82)씨는 1960년 격동의 시기에 고려대 학생들과 정계천을 돌면서 반독재 투쟁을 시작했다.

그 당시는 강진 출생 박씨가 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로 올라와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정장을 하던 때였다.

그는 3·15부정선거가 터지자 서대문로타리에서 부통령인 이기붕의 집을 찾아가 이승만 '독재 12년'을 부수자고 청년들과 함께 민주화를 외쳤다.

4·19혁명 이후 박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진지역 후보였던 양병일씨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유세현장을 돌며 4·19현장의 피비린내나는 살육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양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역사외식에 눈을 뜨면서 5·16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일삼았던 박정희 정

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거룩한 희생을 '독재에서 독재로' 더럽혔다는 생각에 그는 김구의 비서였던 장준하를 경호하면서 반독재 운동을 이어갔다.

박씨가 항일독립투쟁을 했던 장준하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 민족주의자이자 교육자인 함석헌과의 만남부터다.

그 시기 충남과 강원도 씨알농장에는 민주화 투쟁을 하던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를 외치면서 모여들었다.

중학교때부터 삼촌이 지니고 있던 사상계적인 함석헌의 '씨알의 소리'라는 잡지를 보면서 자랐던 그는 더 깊은 사상을 배우고자 1965년경 강원도 고성군 씨알농장을 찾아갔다.

함석헌의 씨알사상은 기독교를 근원으로 존재 권리를 억압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주제로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비폭력적 행동의 철학'이다.

1972년 가을에 함석헌의 집에서 장준하



박세정(82)씨는 4·19때 반독재 시위를 시작한 후 김구의 비서였던 장준하를 보좌·경호했고, 5·18민주화운동의 대학살극을 전국에 알렸다. /오복기자

와 인연을 맺고 이듬해 2월 총선때 장준하 후보를 위해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들어가 부정선거 증거물을 수집하고 모았다.

그는 다져진 무예와 체력을 바탕으로 이후 1975년까지 장준하를 보좌하면서 경호를 수행했다.

박씨는 당시 선거운동을 했던 시기를 일생에서 가장 가슴아린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들의 선거는 초라했고, 청년들은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모인 청년들은 장준하가 상해에서 김구에게 받은 피로 얼룩진 태극기를 싸구려 여관방에 걸어 놓고 반독재와 민주주의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사법당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았고 중앙정보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도 당해야만 했다.

장준하 보좌 시절부터 수배령이 내려졌던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1973년 현상금 100만원(1계급 특진)이 걸린 요주의 인물이었다.

1975년 박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가를 받고 광주로 향했다.

광주인권변호사 홍남순, 윤철하 변호사 등을 통해 민청학련에서 갓 석방된 광주 운동권인 김정길, 이강, 김남주 등과 접선했다.

그들은 카프카 서점과 봉심정에서 4·19

관련 사회과학 서적들(금서)을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매일 읽고 토론했다.

행사들의 미행과 감시가 심했기에 비밀이 트인 봉심정으로 모이기 일쑤였다.

야산에 있는 봉심정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여기저기로 빨뿔이 흩어졌다가 모여야 했다.

당시 봉심정은 북과 장구 소리, 풍물패, 토론, 논의, 강의 등을 하는 학생들로 항상 북적였다.

'깃발힌 민중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하에 윤강욱, 나상기, 최철, 박용구, 박석면, 전홍호 등 광주 학생운동권들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었다.

그 곳에서의 토론은 격렬했고, 감경파와 온건파로 나뉘며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1980년 5·18 조짐이 일자 그는 도청 앞에 햇불을 들고 모인 민중들과 함께했다.

박씨는 폭력사태로 얼룩진 현장을 누비다 가운뎃거리의 부락을 받고 광주를 벗어났다.

그 부락은 광주의 대 학살극을 전국에 널리 알리자는 것이었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박씨는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 운동권에선 이미 광주정보를 취합하고 있었고, 그는 힘을 합쳐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서울에 뿌렸다.

이후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도 양성철

노력했다.

부산에 온 지 일주일째 박씨와 양 사범의 대화를 들은 집주인의 신고로 계엄사령부 부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간다.

그의 혐의는 김대중을 도와 내란음모를 꾸렸다는 '국가분란'이었다.

지하실의 고문은 치욕스럽고 버텨내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5·18은 빨갱이 사건이다'라는 편협을 견디기 버거웠다.

그는 이로 인해 5번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박씨는 봉심정에 대해 "반독재 투쟁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매진했던 해방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민주열사들은 한 번씩은 봉심정을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공간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면서 "공임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민주열사들을 지켜낸 봉심정의 어머니(김정길 모 장매남 여사) 역할도 컸다"고 말했다.

장 여사에 대해 박씨는 "가난한 살림에도 단 한번도 봉심정을 찾는 이를 배골게 한 적이 없다"면서 "정액영이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때에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놈들 이라면서 민주열사들을 반겼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봉심정이라는 장소에서 수없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 했던 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 여수버스회사 '성희롱성' 문자 온라인 중심 '확산'

### 회사측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 개최할 계획"

<속보>씨아이 흠뻑쇼와 관련해 여수 시내 버스 관계자가 발송한 성희롱성 단체 문자(본보 2022년 8월 7일자 6면 보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여수의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흠뻑쇼 전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놓고 "여성승객을 눈 요깃거리로 생각하나 정말 싫다", "기분 정말 나쁘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 시내버스 운수회사 보낸 문자에는 "터미널이 혼잡하니 승객을 태울 때 주의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전국에서 늘씬뻥뻥한 아가씨들이 집결하니 눈요기 한다고 생각하고 수고하러"는 내용이 담겨졌다.

문자를 발송한 해당 직원은 영입부 소속으로 작성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문자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전국적으로 항의가 빚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여성승객이 아닌 눈요기를 위한 대상으로 표현하며 이를 장난, 농담으로 소비하는 것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직원의 낮은 성인지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욱이 해당 문자가 회사의 전체 안내 문자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 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아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지만, 회사 자체의 징계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광주지방 변호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성희롱 공문에 대한 회사 자체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내버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다인기자

### '학동 붕괴참사' 70대 브로커 징역 2년 추징금 3억7천만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정민)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7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한술·다원이앤씨,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6억4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복기자



8일 오전 서구 양동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차선을 막고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예리기자

### 양동시장 인근 싱크홀...인명·재산 피해 났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경 광주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 규모는 직경 30·40cm, 깊이 80cm 가량으로 별도 교통사고나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긴급 복구에 착수, 이날 오후 1시경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싱크홀 발생과 관련해 인근 공사 현장 관계자는 "매립된 하수관로가 곳곳에 뻗어 있어 또다른 붕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